정몽헌 회장의 죽음을 애도하며

- 김병로 / 2003. 8. 7 -
국회한민족통일연구회 자문위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연구실장 역임,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우리는 얼마 전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이 투신자살했다는 참으로 참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털어 경제협력과 남북 민족의 화해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헌신해 오던 정회장의 죽음은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북한에게 퍼준다는 비난을 무릅쓰면서도 분단의 벽을 깨뜨리고자 무던히 애쓰던 정회장은 결국 분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의 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수사와 대북 퍼주기 논란으로 나라가 온통 두동강이 나 있었습니다.
집권당에서 50년 이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동족의 입장에서 북한에 경제협력과 대북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타협할 수 없는 독재권력이기 때문에 경제협력이나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두 주장 모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주장들이 이성과 합리적 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지역주의와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지나온 몇 년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정몽헌 회장이 아버지를 따라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통과한 이후, 남북관계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남북의 뱃길을 개척하여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금강산을 방문했으며, 북한과의 끈질긴 대화와 타협으로 마침내 금강산 육로를 열었습니다. 평양에 정주영체육관을 들어서게 했고, 개성공단을 착공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산파역할도 했습니다. 50년 이상 지속된 긴장과 대립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어 놓는데 기여한 정회장의 업적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혹자는 금강산 관광을 혹평하면서 금강산 관광은 돈만 많이 들지 금강산에 가서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평양과 신의주 같은 북한의 도시를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유로운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금강산이라도 방문하여 북한을 느껴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발로 그 땅을 밟아 보고 몸으로 그 곳에 서 볼 때, 비로소 바뀌는 것입니다. 역사가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 구체적인 공간과 뗄 수 없는 관

http://file.onnuritv.com

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경복궁과 덕수궁을 관람하고 여러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떠올리는 것도 우리 의식이 공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지나치게 환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장미빛 미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구체적으로 공간의 열림과 더불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금강산 관광은 남북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편임이 분명합니다.

정회장의 죽음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또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기업을 끌어들여 대북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느니, 특검수사를 무리하게 진행시켰다느니 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을 극복하고 또 정몽헌 회장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회장이 꿈꾸었던 대북사업을 전 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현대아산의 대북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대아산을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승화시켜 갑시다. 작년 6월의 드높던 함성과 촛불시위로 보여주었던 우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노정에 쏟아부읍시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민족화해와 협력의 정신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줍시다. 그것이 정몽헌 회장이 온 몸을 던져 말하고자 했던 그 절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